“마음공부 하는 청년들이 펼쳐가는 세상”

한마음선원 10월 21일 제15회 전국연합청년법회 봉행

안양본원에 1000여 청년대중 운집
대행 스님 영상법문 · 즉문즉답 경청
전국지원 청년 열정 한자리서 선뵈





이날 전국연합법회에는 1000여 대중이 모여 마음공부를 논했다. 오른쪽 사진은 2부 담선토크 모습이다.

노덕현 · 김지원 기자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0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서 ‘제15회 전국연합청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안양본원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진주, 제주 등 전국 15개 지원서 청년회 법사 스님과 1000여 청년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의식곡 △청법삼배, 청법가, 입정 △대행 스님 영상 법문 △스승님께 올리는 글 낭독 △대구 · 울산지원 청년연합 합창단의 ‘한 그릇의 물맛’ ‘자기의 길을 닦으려면’ 선법가 음성공양 △불사금 전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서는 특히 대행 스님이 과거 청년불자들에게 하신 법문과 청년들과 대행 스님이 함께 나눈 질의응답이 영상으로 전해졌다.

1995년 11월 5일 제5회 전국연합청년법회서 대행 스님은 “굳세고 금 같은 마음 하나가 우주 천하를 덮고도 남는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대로가 답이다”며 “소소한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매달리지 마라. 안 되고 되는 것은 모두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남을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는 속담처럼 자기의 근본 마음을 굳게 믿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공부에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에 참석한 광주지원 강하림(22) 씨는 ‘대행 큰스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선원서 배운 대로 관하려고 노력했고, 할 수 있다고 마음에 입력한 결과 이루고자 한 입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힘든 일을 겪으며 마음공부와 법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며 “대학 동기 3명이 나를 견제하려고 던진 말에 자기의심을 반복하며 괴로웠다. 큰스님 비디오 법문과 법우들의 생활 속 마음공부 이야기를 들으며 주인공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 타인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관심과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전국 지원 청년 법우분들이 이렇게 도량 가득 메워주어 매우 든든하다. 큰스님께서 법문에서 여러분이 우주 천지를 이끌 수 있는 기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하시면서 스님의 에너지도 가득 전달해 주셨을 것”이라며 “이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인연이 천년에 한 번 만날까 싶을 정도로 귀한 인연이라고 큰스님께서 말씀하셨듯 여러분도 한마음을 내어 더욱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훈 안양본원 청년회장(33)은 “전국 청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들은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근본을 믿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또 내 마음과 같이 생각하라는 큰스님 가르침을 따르며 정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의 은혜에 보답하고 전체에 이익되는 청년회가 되도록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진주지원에서 참가한 윤지연(22) 씨는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부터 두 여동생들과 함께 선원을 다녔다”며 “평상시 각자 바쁘게 지내다보니 셋이 다같이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법회를 같이 나오니 좋다. 다른 청년들과 법문을 들으면서 더욱 마음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현안 어떻게 해결할까

한국불교발전聯 심포지엄

한국불교 현안에 대한 분석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혜총)은 11월 5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의 현안과 진로 모색’을 주제로 개원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혜총 스님(조계종 前 포교원장)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불교의 역할’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알리며, 주제 발표에서는 대사회 · 포교 · 재가운동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진다.

주요 발표로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현실과 사회적 신뢰 구축’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포교현실과 전법교화 전략’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종단 현실 속에서 재가운동의 현황과 전망’ △이덕진 前창원문성대 교수의 ‘사부대중 어떻게 소통하고 화합할 것인가’가 발표된다.

종합토론자로는 조계종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조계종 前 총무부장 원학 스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종교구, 대만 생활불교 체험

10월 15~19일 불광산사, 중태선사 등 참배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혜자)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군승 해외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대만불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군종교구 성지순례단은 수석부교구장 남전 스님과 차석부교구장 지선 스님, 육군 52사단 지효법사 그리고 공군 15전투비행단 지안법사 등 위관 군승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순례는 4박 5일 일정으로 자항사, 중태선사,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대만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다.〈사진〉

순례 첫날은 인간불교를 표방한 자항스님의 육신보살 등신불이 모셔져 있는 자항사를 참배했으며 2일차는 세계 3대 종교사원으로 칭해지는 중태선사를 방문하고 불광산사를 참배했다.

3일차에는 불광산사 불타기념관을 방문했다. 주신 신보 스님은 “불광산사를 개산하신 성운대사께서는 사람중심,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 실천함을 주창하셨다. 수석부교구장 남전 스님 및 법사님들은 중생들의 의지처인 보살행의 모습이요 마음의 선생님이기에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바란다”라고 환영의 인사말을 했다.

수석부교구장 남전 스님은 “한국의 대표종단 군종교구에서 군포교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군승 10명을 대표하여 성운 대사님의 원력과 수행, 전법을 크게 찬탄하며, 불광산사에서의 귀중한 것을 배운다. 참다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제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원력을 세운다”고 답사했다.

이어 4일차에는 화련지역으로 이동하여 세계최대의 불교자선사업재단, 세계복지사업의 중심인 자제공덕회 정사당 참배 및 모태인 자제정사를 방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VMS도입, 전문봉사단 출범

〈봉사인증시스템〉

10월 18일 자원봉사단 ‘가피’ 발대식 열어



10월 18일 전통공연장에서 대중들은 한마음으로 발심하며 불교발전을 서원했다.

조계사는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함께하는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가피 자원봉사단 200여명은 집수리, 반찬 나눔 등 지역 취약 계층 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 의료봉사, 한부모 · 다문화 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새터민과 탈북 대학생 지원, 자연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가피 자원봉사단은 사회복지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에 가입,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실적 인증 확인서 발급과 조회를 가능케 하고 우수봉사단과 봉사자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 봉사활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계사는 올해 5월, 가피 자원봉사단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자원봉사단을 비영리 민간단체로 법인등록을 했다. 2회에 걸쳐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사찰 순회 교육을 완료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단 지회등록도 마쳤다.

주지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고민과 신심으로 오늘 자원봉사단이 발대하게 되었다”라며 “가피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봉사하고, 하나하나 쌓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조계사는 10월 24일 대웅전 앞 마당에서 ‘제10회 조계사&종로구 일자리나눔 채용박람회 1 · 9DAY’를 개최해 중장년층 취업상담과 현장 채용 등을 진행했다. 이날 주지 지현 스님과 김강윤 종로구 부구청장이 직접 취업상담사로 나서 구직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도 했다.

이날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직 컨설팅(구직표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기술 안내 등), 현장채용을 위한 면접, 취업교육 · 직업훈련 안내, 중 · 장년 및 노인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10월 20일 조계사에서 국제포교사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포교사는 1995년에 1기가 배출 되었으며, 1998년 국제포교사회가 창립됐다. 국제포교사는 1기 12명으로 시작하여 2018년 현재 23기로 품수를 받은 12명을 포함해 총 60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대신해 포교국장 보연 스님이 참석해 국제포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홍우 회장은 기념사에서 “출가하시는 스님들의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국제포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국제포교사회는 20년간의 국제포교사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18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청소년부, 연등부, 다문화부 및 교육부 활동내용도 소개됐다. 특히 청소년부는 올해 해군 본부인 통해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어린이 법회활동을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규정원장 혜성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규정부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휴대전화 011-870-0021